

# 기후위기에 직면한 지구와 우리를 살리는 실천



박진선 부장  
(사)서울YWCA 생명운동팀

## 들어가며

가뭄과 산불, 태풍과 호우, 그리고 코로나19까지. 기후위기는 이제 단순히 환경문제를 넘어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19를 통해 그 위기의 범위가 일상의 안전뿐 아니라, 경제·사회 시스템 작동조차 늦춘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기후위기는 소비 자본주의가 낳은 결과이며, 또한 자본주의 위기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법도 익숙한 우리 삶의 방식과 소비 행태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 쌀 소비량의 2배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매년 3억톤, 이중 플라스틱 용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47%에 달하고 있다. 2018년 환경부는 한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145.9kg으로 1인당 쌀 소비량의 2배 이상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플라스틱은 쓰레기 처리 문제만을 양산하지 않는다.

가볍고 튼튼하며, 부드럽고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오랜 시간 형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는 탄소를 배출하고, 소각할 때는 다이옥신을 발생시켜 환경과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 온라인 쇼핑 천국! 배송 포장 쓰레기 배출증가

이뿐만이 아니다. 전국에서 하루 평균 버려진 종이 폐기물은 2019년 대비 24.8%가 늘어났고, 이 중 대부분은 택배 상자였다(2020. 환경부). 2020년 국내에서 사용된 택배상자는 33억 7천만개, 전년과 비교해 20% 늘어났는데, 박스를 밀폐하기 위해 사용된 일회용 테이프, 완충재 스티로폼 같은 발포수지는 14.4%, 포장용으로 많이 쓰이는 비닐도 9%나 늘어났다.

대량생산과 소비에 걸맞는 편리함에 젖어든 시스템과 장기화된 코로나 위기까지 더해져 지구가 수용할 만한 한계를 넘어선 쓰레기 문제를 낳고 있다.

## 일회용품 사용은, 넘치는 욕조에 수도꼭지를 틀어두는 것

해양 생물학자 트레이시 민서는 “지금처럼 일회용 플라스틱을 쓰고 버리면서 기술로만 해결하려는 태도는 물이 넘치는 욕조에 수도꼭지를 계속 틀어둔 채 바가지로 물만 떠내는 꼴이다. 먼저 수도꼭지를

잠가야만 한다”(『우린 일회용이 아니니까』, 고금숙, 2019. 재인8)고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행태를 지적하고 있다. 더 좋은 대안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지나쳐 한 번 쓰고 버리는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들면, 생분해 기술을 발명한다고 해도 플라스틱의 미래는 없다. 플라스틱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없는 것이다.

진정한 대안은 최대한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사회적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이다. 일회용에 앞서 다회용을, 재활용에 앞서 재사용 시스템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

###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올 6월부터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컵 사용 시 개당 500원 정도의 보증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가 6월 10일부터 전국 매장 수 100개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플라스틱컵과 종이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소비자들은 음료 가격 외에도 보증금을 200원에서 최대 500원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다. 적용 매장수는 3만 8천여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사회적 차원의 1회용품 거절, 재사용 시스템 활성화 되어야

기업이 생산한 용기를 회수해 재사용하고, 소비자가 용기를 반납하면 보증금이 반환되고 용기는 세척 후 재사용 되어야 한다. 빨대 없이도 입 대고 마실 수 있는 음료수 포장, 필요한 사람에게만 전자

영수증을 전송하는 포스기 등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시민 한 사람 개인을 넘어 사회적 차원의 거절 요구가 필요하다. 6월10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보증금 제도”가 바로 사회적 차원에서 이행되는 1회용품 거절 요구라고 본다. 거절하기와 줄이기가 사회적으로 빛을 발하기 위해선 재사용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

스테인리스 용기에 담긴 아이스크림과 샴푸, 거리 곳곳에 설치된 생수·음료 리필 자판기, 재사용 용기에 물만 부어 녹여 쓰는 알약 형태의 세제, 리필하는 대용량 자판기를 설치·판매하고, 재사용 용기를 세척해 제공하는 화장품도 가능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온라인 쇼핑과 택배업계에서도 ‘알비백’ ‘퍼플박스’ 등 회수형 보냉백을 비롯한 재사용 모델이 이미 나오고 있다.

1,000번 정도 재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택배 상자를 제작 순환시키고, 튼튼하게 제작된 택배 봉투를 우체통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서비스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이제 새로운 방식의 생산과 소비를 고민하는 데서 나아가 실현해야 할 때이다.

## 쓰레기의 순환이 이뤄지는 사회 만들어야

새로운 시대는 물질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쓸모의 순환을 이루며 ‘쓰레기가 되는 삶’을 원천 봉쇄하는 데 달려 있다. 쓰레기 없는 삶을 실천해 온 비존슨은 거절하기(Refuse), 줄이기(Reduce), 재사용

(Reuse), 재활용(Recycle), 썩히기(Rot) 등 ‘5R’을 강조하였다. 유럽의 나라들은 페트병을 회수하고, 보증금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포장세를 부과하는 빈병 환불보증금제를 유리병뿐 아니라 페트병까지 확대 실시하여 재사용과 재활용율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회용품 보증금 제도가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자원순환을 이루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재사용을 뛰어넘어 포장 자체를 없앤 ‘무포장’ 혁신도 가능하다. 비닐봉지와 라벨을 없애기 위해 레이저 기술로 채소와 과일 표면에 직접 정보를 새기고, 포장이 필요 없는 샴푸, 파운데이션, 하이라이터 등 고체 화장품을 출시하고, 해초 또는 타피오카나 쌀로 만들어 식용 가능한 일회용 스푼과 빨대로 대체할 수 있다.

## 생산, 유통, 소비로 이어지는 제로웨이스트 실천 확대 필요

이제 포장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자재 활용을 촉진하는 ‘지속 가능한 배송’은 기업의 중요한 과제이다. 소비자들 역시 제품의 성분만이 아니라 포장재의 친환경 여부를 중요한 구매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이에 기업은 품질 안전은 보장하되 환경 폐해를 최소화하는 포장 기능을 구현해야 할 때이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 포장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마존은 2018년 10월 친환경 패키징 개

발에 1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주요 소비재 기업들 역시 완전히 재활용 가능하고, 재활용품을 활용한 용기 개발, 쓰레기를 최소화 하는 포장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상자와 포장재 디자인과 재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은 최대한 줄이는 한편, 생분해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와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2016년 더피커(thepicker)를 첫 시작으로, 제로웨이스트 매장은 리필샵을 포함한 상점 70곳, 카페 27곳, 샵인샵 혹은 단일 품목 리필매장 35곳 등 전국 약 120여 개가 있다.

### 3R에서 5R 실천으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3R 원칙'은 1)줄이고(Reduce), 2)다시 사용하고(Reuse), 3)재활용하는(Recycle)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2가지가 더 필요

하다. 바로 4)질적인 변화를 추구하고(Refine), 5)폐자원을 회수하는(Recover) 것이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소비자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나아가 지구와 생명을 지키는 가치 있는 선택으로, 기업은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며, 정부는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전환 체계를 만드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

